

지역 소식 통

정읍시, 투자보조금 지원
기업 사후관리 현장 점검

정읍시가 지역 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이후, 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사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는 오는 6월 27일까지 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운영 실태와 고용 현황 등을 확인하는 사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투자보조금은 정읍시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보조금 수령 기업은 사업 이행 기간 내 지원받은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정해진 고용 기준과 공장 가동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후관리 점검은 △공장 가동 여부 등 현장 중심의 점검으로 진행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부과

정읍시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4년간의 제도기간 종료에 따른 본격 시행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모든 읍면동이 신고 대상 지역이며, 예외는 없다.

시는 제도 도입 초기 정착을 위해 올해 5월 31일까지 4년간 제도기간을 운영해왔으나, 제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4월 2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기존 4만원~100만 원 수준에서 2만원~30만원으로 완화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대선 투표 “민주주의, 참여로 완성”

정읍시, 투표 참여 캠페인... 현장 · 온라인 아우르는 전방위 홍보 나서

정읍시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한 투표 캠페인을 전개하며, 현장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전방위 홍보에 나섰다.

시는 27일 시민의 자발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투표 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이학수 시장이 참여해 제일고사거리 등 3개 다중이용장소에서 '투표합시다!' 피켓을 들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학수 시장은 "투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우리 정읍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참여"라며 "시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장애인 청년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SNS와 공식 누리집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의 전화 연결음도 변경해, 자연스럽게 투표 일정을 알리는 방식으로 시민 접점을 확대 중이다.

전화 안내 문구는 오는 30일까지는 "5월 29일과 30일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6월 3일까지는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로 설정된다.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와 투표소 위치는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읍시내 23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터 등 관공서의 전화 연결음도 변경해, 자연스럽게 투표 일정을 알리는 방식으로 시민 접점을 확대 중이다.

전화 안내 문구는 오는 30일까지는 "5월 29일과 30일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6월 3일까지는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로 설정된다.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와 투표소 위치는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읍시내 23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서울→고창행 시외버스 환승 불편 해소

30일부터 온라인 예매 가능

서울 센트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창터미널로 이동하는 시외버스 이용 관련, 정안휴게소에서 고창행 온라인 예매 및 현장발권이 가능해진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고창으로 이동하는 버스는 정안휴게소에서 환승이 필요하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사전 고창행 발권과 예약이 불가능해 현장에서 현금

으로만 탑승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정안휴게소에서 버스 좌석이 매진되면,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운준병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 환승 체계 개선을 건의, 최근 "온라인 및 현장 발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5월30일부터는 서울→고창 시외버스의 정안휴게소 환승 관련 온라인 예매(티머니·KQ 어플)로

탑승객 편의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시외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전북고속, 호남고속, 대한고속 등 전북 시외버스 업체들이 운행 중이며, 서울에서 고창까지 운행 시간은 약 3시간 10분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대표 레포츠 시설 '구절초 짚와이어' 개장

정밀 안전 점검 · 안전요원 전문교육... 안전한 체험 선사

정읍시가 자연과 스릴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표 레포츠 시설 '구절초 짚와이어'를 27일 개장한다.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이하 '구절초 짚와이어')는 구절초 지방정원의 출렁다리를 건너 부치봉 산책로를 따라 오르며 도착하게 되는 공중 레포츠 시설로, 관광객이 한눈에 정원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산림형 체험 명소다.

짚와이어는 부치봉 정상에서 출발해 구절초 정원과 투명한 물줄기의 주령

천을 내려다보며 550m 구간을 활강하게 된다. 평균 경사를 9.9%로 구성된 2개 라인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5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약 1만 4000여 명이 체험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일이다. 이용 요금은 성인 9000원, 청소년 7000원이며, 정읍시민과 축제 기간 유료 입장객은 2000원이 감면된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안



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개장 전 정밀 안전 점검과 안전요원 교육을 마쳤다"며 "짚와이어 체험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은 최근 위도면 위도해수욕장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26회 위도면민 화합의 날 행사에서 근농인재육성장학금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부안 위도면민 화합의 날’

위도해수욕장서 열려... 근농인재육성장학금 기부 잇따라

부안군은 최근 위도면 위도해수욕장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26회 위도면민 화합의 날 행사에서 근농인재육성장학금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바로 위도면 의용소방대(대장 장운만·최보영)와 파장금마을 주민들이 그 주인공이다.

위도면 의용소방대는 소방력 운용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배치된 민간 자원으로 화재 신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초기 재난 대응 임무를 맡고 있다.

행사에서는 재난 현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여러 방면에서 따뜻한 봉사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위도면 의용소방대가 위도면민의 날을 맞아 근농인재육성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또 파장금마을 주민들도 지역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에 나섰다.

/부안=김석진기자

박기완 파장금마을 이장은 "아름다운 풍광과 넉넉한 노을빛을 간직한 우리 파장금마을에서도 지역 청년들을 응원하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을 대표해 근농인재육성장학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권익현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위도파궂불이로 풍성한 위도면민 화합의 날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뜻깊은 기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이 배움의 의지를 가진 학생들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농인재육성재단에 기부된 장학금은 반값등록금, 다재녀장학금, 특기장학금, 대학 비정학자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 지원금 등 장학사업에 쓰이게 된다.

/부안=김석진기자

“달고 맛있는 고창수박 만나보세요”

고창군, 지리적표시 등록된 ‘명품 고창수박’ 수확 시작

“달고 맛있는 고창수박 만나보세요”

고창군이 27일 오후 성내면 이후극 농가에서 올해 수박 수확 행사를 진행하며 2025년 지리적표시 명품 고창수박 수확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첫 수확된 수박은 '지리적표시제' 마크를 단 명품 수박으로 공식 판매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20일 고창수박은 국가 지리적표시제 116호로 등록되며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리적표시제도 덕분에 일정 기준을 통과한 수박만 명품 '고창수박'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는 함

부로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이번 지리적표시제 시행을 통해 고창 수박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어 농가소득이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전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인 청정 고창의 대표 농산물로서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수박 명품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전국 최고의 수박 브랜드 명성을 유지하겠다"며, "전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인 청정 고창수박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알려 농가소득이 증대될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